

# 태권도원, 외래 스포츠 관광지 '우뚝'

#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참가자 등 외국인 관광객 발길 이어져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이하,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리며 27개국 3,500여 명의 태권도인들과 관계자들이 찾는 가운데 대회 참가 및 태권도 체험 등을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외국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온 150명은 품새 수련과 격파, 상설공연 관람 등 태권도를 체험하며 2박 3일 간 태권도원에서 시간을 가졌다. 또한 16일에는 60명의 재미동포 청소년 모국 방문단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원장 등 태권도 체험을 했다.

특히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참가자 중 5백여명의 외국인들이 태권도원에 머물며 대회 참가를 비롯해 품새 세미나, 겨투기 캠프, 전주 한옥마을·무주 덕유산 향적봉 등 지역 문화탐방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방문 내외국인을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18일부터 한 달간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무주문화원, 한국아트크래프트협회와 함께 레진 아트, 블랑코 오브제, 플루이드 아트 작가 38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태권도와 수준 높은 전시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는 내국인들과 함께 많은 외국인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미국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진흥재단 지도 사범과 함께 발기술을 수련 하고 있다.

체험을 즐기는 등 태권도원이 외래 스포츠 관광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권도원이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4일까지 접수... 총 5개 단체 선정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4일까지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도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대여전시 함으로써 기관(기업)에서의 미술품 향유와 소장 문화를 촉진하고, 미술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유통 기회 및 판매 연계를 통해 소득 창출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시각예술분야 민간단체로 참여 예술인의 거주지가 모두 전북이어야 하며, 시각예술분야 전문 예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참여기관(기업) 내 미술작품 전시에 따른 작품 대여비 및 기획자 인건비를 1인당 80만원이며, 단체별 전시 홍보 운영비 등 56만원을 지원한다.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총 5개 단체(참여 예술인 55명)를 선정할 예정이며, 매칭된 기관(기업)에서 2개월간 평면 입체,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술품을 전시한다.

참여단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국가문화예



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학당 2기 교육생 26일까지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6일까지 한지학당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지학당은 전통한지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이 직접 초지 뜬 한지에 민화를 그려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한지학당은 전통한지의 제조법을 바로 알고 직접 제조한 한지에 민화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한지학당 2기 교육 주제는 한자 문자와 그림을 결합한 형태의 그림인 ‘문자도’다.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한자 획 속에 그려 서체를 구성하기에 교육생의 소망이나 신념 등을 담은 특별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2기 교육 과정은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8주에 걸쳐 흑석골에 위치한 전주전통한지관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한여름 밤 음악과 함께 여름바캉스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8월 14~17일 ‘소리썸머나잇’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완준)가 여름으로 개최 시기를 옮기며, 새로운 변화에 맞는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소리축제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은 실내에, 대중성과 축제성이 높은 작품들은 야외에 배치함으로써 시가지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소리축제 기간 중 8월 14~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는 ‘소리썸머나잇’을 통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신나게 춤추고 뛰놀며 여름밤을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3개 팀의 공연을 1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어 온 가족이 다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며 핫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contents/bridge/24008869)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티켓 문의는 전화 1544-1555, 공연 문의는 063-251-859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완주문화재단, 운주면 수해복구 봉사 동참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철우)이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운주면을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수해복구 작업에는 문화 단체직원 30명이 참여했으며, 주택 토사제거 및 집기 청소 등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단체는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누에, 향토문화예술회관 참여 종사자로 평소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완주

문화향성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철우 상임이사는 “이번 봉사가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후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완주예총 등 문화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해 피해지역민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